



‘테니스로 무더위 날려’ NH농협은행 스포츠단, 우수고객 초청 원 포인트 행사

연일 이어지는 폭폭 찌는 무더위도 테니스에 대한 열정과 패기를 막지 못했다. 7월 21일 경기도 고양시 농협대학교 테니스장에서 ‘우수고객 초청 테니스 원 포인트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테니스 저변확대와 스포츠 재능 기부를 통한 나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NH농협은행 스포츠단(단장 박용국)이 마련한 것으로 약 50명이 참석하였다.

박용국 단장과 장한섭 부단장을 비롯해 김동현 감독, 김세현, 정영원, 박상희 등 국내 최고 명문 NH농협은행 테니스단이 일일 강사로 나섰다. 농협은행 선수단은 참가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고 체계적 이면서도 재미있는 코칭을 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시종일관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즐겼다. 무더위 때문에 박 단장이 “그만할까요?”라고 하면 참가자들은 하나 같이 “아니요, 더 해요”라며 배움의 열정을 보였다. 행사 막바지에는 선수들을 상대로 복식 경기를 하면서 복식 전술 및 전략을 익히기도 했다. 약 3시간 30분간의 원 포인트 레슨이 끝난 후 학생식당에 마련된 점심 식사와 경품 추첨 이벤트를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한희창 씨는 “원 포인트 레슨을 받으면서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게 돼 초보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 국내 최고의 선수들에게 레슨을 받아 무척 영광이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유쾌하고 섬세한 코칭으로 참가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박상희는 “더운 날씨에 모두 힘들었지만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생각보다 참가자들의 수준이 높아서 놀랐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 나도 열심히 하려고 했다.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동호인들과 가까워진 것 같아 유익했다”고 말했다.

박용국 단장은 “여름을 맞아해 우수 고객에게 재능기부와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참가자들에게 매우 값진 시간이 되었기 바라며 무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해준 참가자들에게 감사하다. 가을에도 지방에서 원 포인트 레슨을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 글, 사진, 박준용 기자



①원 포인트 클리닉 참가자와 관계자들 ②클리닉에 앞서 사다리를 이용해 워밍업을 하고 있다 ③포핸드 이론 수업을 하는 박용국 단장 ④발리 연습을 하는 참가자들 ⑤개인 맞춤 레슨을 하고 있는 김동현 감독(왼쪽) ⑥쉬는 시간에 박상희(오른쪽)가 포핸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⑦김세현(왼쪽)이 서브 그림 잡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⑧NH농협은행 테니스단. 왼쪽부터 박용국 스포츠단장, 김동현 감독, 정영원, 박상희, 김세현, 홍현휘(은퇴), 장한섭 스포츠단 부단장